| 현불 논단 |

‘STOP!’ 가짜뉴스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보+전염병 합성어 ‘인포데믹스’
부정확 정보들 무분별 확산 의미

한국도 가짜뉴스 사회문제 대두
가짜언론사 · 가짜기사 범람 상황

“유력인 말도 진실로 받지말라”
부처님, 자의적 정보 이해 경계
현재 ‘인포데믹스’가 가장 위험
거짓되고 삿된 말, 사회적 반칙

요즘 ‘에피데믹스(전염병)’ 보다 ‘인포데믹스(Infodemics)’라는 말이 유행이다. ‘인포데믹스’는 2003년에 처음 언급된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근거 없는 각종 부정확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IT 기기의 발달로 인포데믹스의 위험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 휴대전화에 SNS 기능이 탑재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 속도가 실시간화되었고 그에 따라 소식의 파급력도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기에 거름망 없이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전파됐고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몇 해 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이 선정된 적이 있다. 이 단어를 선택한 옥스퍼드 영어사전 측은 단어 사용 빈도가 전년 대비 스무 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히고,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를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접두사 ‘포스트(post)’에 대해 시간 순서상 진실 이후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 되었다는 의미라고 부언 · 설명하면서 믿을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거짓과 가짜로 도배된 정보가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가짜뉴스 판별법’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7가지 방법’ 등의 꼭지가 지면에 등장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변상욱 YTN 앵커는 ‘가짜뉴스’ 문제를 ‘가짜언론사’와 ‘가짜기사’로 크게 둘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언론사로서 취재와 분석, 객관성 · 타당성에 대한 스크린 장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버젓이 기사를 생산하는 ‘가짜언론사들’과 기성 언론에서 마저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기사들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부처님은 〈깔라마경(A3:65)〉에서 마을을 방문한 소위 지식인들(사문 · 바라문)의 온갖 주장에 골머리를 앓다가 온 깔라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있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어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들은 현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더 근원적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마음이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정보를 대해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코로나19 역학 조사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인포데믹스’라고. 그 말에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제발 가짜뉴스 그만 좀 퍼뜨립시다”

그렇다. 바이러스 폭탄으로 팍팍한 이 시대에 그것보다 더 센 ‘말(言) 폭탄’까지 터뜨리는 것은 너무 큰 사회적 반칙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쓸쓸하고 아름다운 부부싸움

재활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법당을 자주 찾는다. 보호자들은 재활을 받고 환자와 함께 법당에 들러 부처님을 뵙고 가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다 지친 그 가족들은 부처님 품안에서 잠시 영혼을 쉬기도 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60대 후반의 거사님은 목숨은 건졌으나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의식은 있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들을 수 있기에 그의 아내는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눈물을 달고 살았다.

저녁 즈음 그의 아내가 법당을 찾았다. “스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음식을 거부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하고 자초지종을 묻자, 한참을 흐느끼다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보살님은 원래 비위가 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남편을 돌보는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기 짝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별난 후각의 예민함과 비위 약함이 남편을 돌보는데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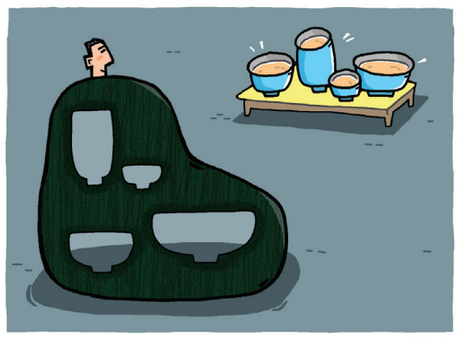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변을 보았는데 유독 그 양이 많았다. 아내는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올라오며 자신도 모르게 “아휴, 많이도 쌌네”하는 짜증 섞인 말을 밖으로 내뱉었다. 모두 정리한 뒤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남편이 눈을 꼭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당황해 허둥대며 둘러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은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후로 ‘피딩’으로 음식을 주입하려하면 온몸으로 강하게 거부했고, 억지로 넣다보니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남편에게 용서를 빌며 제발 음식을 먹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다. 눈을 꼬옥 감고 있는 거사님에게 “거사님”하고 불렀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여보, 스님 오셨어요”하고 말하자 감은 눈이 파르르 떨렸다.

“거사님 많이 화나시고 속상하셨죠. 보살님이 법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해서 거사님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펑펑 울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자 감은 눈이 더욱 크게 떨렸다. “거사님, 병간호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안하면 좋을 소리도 하게 되요. 거사님, 아내의 실수를 이해해주세요.”

옆에서 훌쩍이는 아내의 소리를 들으며 거사님도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의 잘못했다는 소리와 남편의 소리없는 흐느낌이 들려왔다. 부부의 화해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3천배 철야정진’ 꾸준히 이어지길

매년 부처님오신날 즈음이 되면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 시민과 불자들이 모인다.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난치병 환아들을 돕기 위해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앞두고 여는 ‘난치병 환아돕기 3000배 철야정진’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3000배 철야정진’은 동참한 이들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절을 올리면, 한배 당 100원의 기금으로 환원돼 치료비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2001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년이 지난 지금 불교를 대표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자, 종교와 관계없이 건강법으로 알려진 ‘절’이 누군가에겐 희망을 선사하는 매개가 된 셈이다.

한 사람 한사람의 1배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 누군가에겐 생명을 되살리는 기적의 빛이 됐으니, 그 자체로 새삼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다.

실제 20년간 1만5000여명의 정성이 모였고, 그 정성은 13억 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으로 무려 445명의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살아갈 희망을 만났다. 그 희망은 시급한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부모에게, 매일매일이 고통이던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든든한 의지처가 될 것이다.

매년 작은 정성을 모아 큰 나눔으로 회향했던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사찰에 장엄한 연등 아래서 일제히 몸을 낮추는 장관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대신 온라인 모금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9월 한달간 진행하는 온라인 모금을 통해, 지금 이순간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희망과 기적, 자비의 빛이 이어지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세상 바꾸는 첫 걸음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우리사회 현안을 관통하는 뜨거운 감자다. 국민 여론은 이미 찬성으로 모였지만, 일부 개신교계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개신교 눈치보기식 법안 제정은 안된다”며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미있는 움직임이 일었다. 12박 13일, 전국을 순회한 ‘평등버스’다. 서울에서 충청을 지나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를 거쳤다. 총 26개 도시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들었고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음을 나눴으며, 각 지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격려와 연대를 약속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택시해고자연대, 한진중공업 파업 당사자 등 차별의 극단에서 투쟁하고 편견에 맞섰던 이들도 만났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대 물러서서도,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증오와 혐오, 차별에 맞서는 동안, 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절실한 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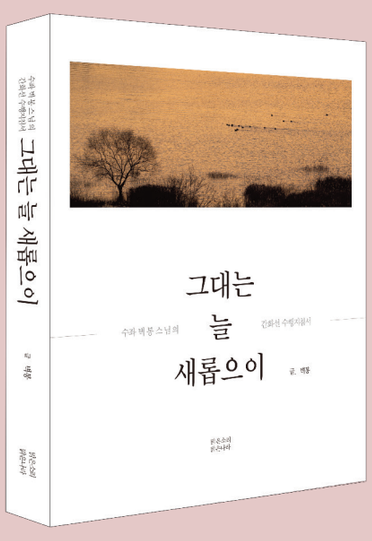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평등버스 탑승자 13명 중 한명이다. 12박 13일의 긴 여정에 함께하면서 우리사회 소수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울고 웃었다. 그가 내린 결론 역시 하나로 귀결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첫 걸음”이라는 것. 평등버스의 전국 순회는 회향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속 평등버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다시한번 마음과 원력을 모아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좌 벽봉스님
간화선 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 및
선서화집 『소식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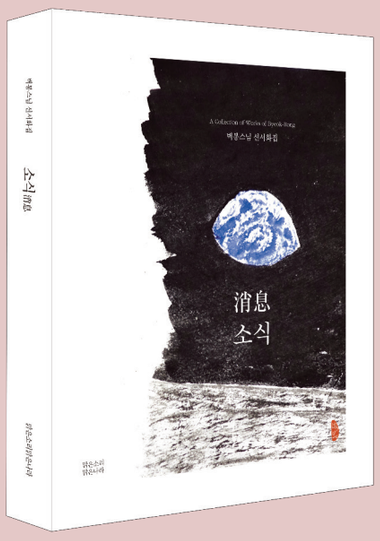
단행본 『그대는 늘 새롭으이』에는 부록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명상도 실려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선서화 전람회



수좌 벽봉스님의 오랜 수행의 결과물.
넘치지 않을,
부족하지 않을 간화선 수행 지침서를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 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
글. 벽봉 | 308쪽 | 20,000원



결제結制와 해제解制,
그리고 입선入禪과 방선放禪의
간극을 그림과 활구로 풀어놓은
선화집이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에게
일침으로 다가갑니다.

선서화집
『소식消息』
글 · 그림. 벽봉 | 108쪽 | 18,000원

출판기념회
2020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10층)

2020년 10월 4일(일) ~ 5일(월)
처음 여는 날. 10월 4일(일) 오후 2시
전시 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문의. 051-255-0263 / Fax. 051-255-0953 / 010-3564-3725 / www.puremind-ms.com